

2010 수의계 10대 소식

1. 심재철 국회의원 “주의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일부 개정 발의



지난 9월 6일 심재철의원의 15명(강명순, 김성동, 김소남, 김장수, 김효재, 박준선, 안형환, 유정현, 이성현, 이정현, 이춘식, 정두언, 정미경, 정해결)의 발의로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발의된 약사법개정안은 처방전 없이는 동물용의약품(마취제, 항생제, 호르몬제, 생물학적 제제 중에서

처방대상약품으로 분류된 약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수의사법개정안은 수의사의 주의동물용의약품 투약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방 및 투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2일에는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의 주관으로 “축산식품위생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 처방제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공청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박희태국회의장, 정의화국회부의장 등이 축사를 하였으며 한나라당 여상규, 강명순의원등이 참석하였다.

강원대학교 김두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이상수동물방역과장, 보건복지부 김충환의약품정책과장, 한국소비자원 정윤희팀장, 대한양돈협회 정선현전무, 대한약사회 고원규 이사, 대한수의사회 우연철상무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각 지부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2.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창립 총회 개최



지난 11월 29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수의학교육 및 수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추진했던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Veterinary Education in Korea, ABOVEK)”의 창립총회가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 대한수의사회 이사, 그리고 관련기관 및 단체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흥식 설립추진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는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의 개회사 및 김철중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장의 창립취지 및 발기선언문 낭독이 있었으며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정관(안) 의결 및 감사 선출이 있었다. 이어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및 원장임명과 이사의 선임이 있었으며 선출과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사장에는 대한수의사회 정영채회장, 원장은 이흥식 설립추진위원장, 당연직 이사에는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 김철중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장, 김주헌 한국수의과대학장협의회장, 박용호 대한수의학회장, 이주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이흥식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장, 선출직 이사에는 김용준 한국임상수의학회장, 김기용 카길애그리퓨리나회장, 김진구 한국동물약품협회장,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윤인중 중앙백신 회장, 감사에는 김명철 충남대학교수, 노천섭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정영채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그동안 인증원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신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유한상, 김명철, 김기석, 박전홍, 이흥식, 강화순, 정갑수)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3. 대한민국 수의사대회 성료



지난 10월 23, 24 양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2010 대한민국 수의사대회 및 동아시아 수의사회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60년을 위하여”란 주제로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은 동물복지 등에 관한 식전세미나에 이어 수목화 대북공연을 마치고 허주형 조직

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정영채 회장과 함께 중앙회기의 입장에 이어 각 시·도회장과 함께 시·도기 입장을 시작으로, 이각모 수석부회장의 내·외빈소개, 홍성희·김현일 수의사의 수의사신조 낭독, 노천섭 사무총장의 약사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이인기 국회의원의 축사 및 인천광역시와 대만의 타이난시수의사회의 자매결연조인식 후 퀸즈의 국악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각계 인사들과 10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첫째 날 기념식 및 식전 심포지엄에 이어 둘째 날은 반려동물임상, 양돈임상, 말임상, 소임상, 수생동물임상 등 축종별 세미나와 처방제 및 산업동물임상인터넷교육시스템 소개 등을 통하여 균형 있는 수의종합학술대회를 유치하게 되는 성과를 남기게 되었다.

4. 구제역 발생에 따른 현장수의사 대응 강화

지난 1월 7일 포천에서 임상수의사(길광철 회원)의 신고로 2002년에 이어 8년만의 구제역발생이 확인되었다. 최초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도로 구제역을 전파했다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각종 회의 및 공식석상에서 8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을 진단하고 신고한 임상수의사의 능력을 부각하여 오해를 불식시키게 되었다. 또한 지난 정기총회 때 길광철 회원에게 회장표창장을 수여하여 명예회복 및 관계기관 등에서 임상수의사의 역할을 재평가하게 하였다. 이후 재차 4월 9일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자원봉사단을 파견하여 현장 감독 등 방역 업무 지원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68명, 충북 충주시에 8명의 임상수의사들이 참가, 부족한 가축방역관 업무를 수행하여 신속하게 차단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5. 자유선진당 이용희의원 수의사의 수의사회 당연가입 및 동원 수의사 수당 지급 입법추진

수의사의 수의사회 당연가입과 국가방역 사업 등에 동원된 수의사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실에서 발의될 계획이다. 발의에 동의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이용희, 정해걸, 윤영, 김우남, 김효석, 이상권, 이명수, 이상민, 임영호, 유성엽, 심재철, 이인기, 손숙미, 조진래, 최규성, 황영철, 신건, 송광호, 김재경, 김영진, 김춘진, 윤석용, 안홍준, 신성범, 백재현 의원 등 25명이다. 현재 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면허증을 받게 되면 의료법상 관련 협회에 당연가입하여야 하나 수의사의 경우 면허를 받아도 수의사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국가방역을 위하여 수의사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원된 수의사에 대한 보수지급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6. 수의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수의사법의 개정(2011년 1월 26일 시행)을 통해 수의사법의 목적에 동물의 건강증진이 추가되었고 진료대상동물도 종전의 가금·조류로, 어패류가 수생동물로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과태료 및 면허정지처분 등 과도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하위법령의 개정이 진행 중이며 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기준 역시 방사선방호시설의 기준 중 납판 설치의무가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보유중인 동물병원의 방사선 장치는 폐기할 때까지 기기검사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7. 산업동물 임상인터넷교육시스템

우리회에서는 주의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대비하여 산업동물수의사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농식품부의 지원으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 12월 2일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현재 임상분야별로 총 40강좌를 포함한 교육홈페이지(edu.kvma.or.kr)가 운영 중이며, 2011년 도에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폭넓은 강사진 선정과 다양한 교육컨텐츠를 확보할 계획이며 70강좌 이상을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이에 회원들은 우리회 교육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해 본 후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8. 애완동물 진료부가세 부과대응

지난 1월 12일 세제개편안 후속조치에서 애완동물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계획이 철회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 8월 24일 2010 세제개편안에 다시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이에 수의사회의 입장을 농식품부에 전달하여 기획재정부와 부처협의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기국회시 우리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기획재정부위원회에 전달하였다. 한편 수의과대학생들에게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켰으며 향후 기획재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TFT구성 및 서명운동 등을 재개할 계획이다.

9. 인공수정사 산과진료 허용 요구에 대한 대응

인공수정사는 축산법에 의거하여 인공수정 행위만 가능하나 수의사 진료에 의한 농가부담 및 불편을 이유로 성호르몬·마취제 사용 및 임신진단 등 산과진료를 허가받고자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에서 인공수정사에게도 마취제사용과 산과진료행위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였다. 이에 국무총리실,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에 강경한 반대입장을 전달하였고 해당기관에 수의사 경시 및 전문성훼손에 대한 엄중 항의 및 경고서한을 발송, 농촌진흥청에서 건의를 철회하였다.

10. 수산질병관리사 동물용의약품 판매제한

일부 수산질병관리원에서 수산생물용이 아닌 일반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산질병관리원에서는 수산생물용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고 일반 동물용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각 시·도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하였다.

기타소식

✦ 검역원 아시아최초 OIE New Castle 표준실험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OIE Brucella 표준실험실 지정에 이어 New Castle Disease도 아시아 최초로 OIE 표준실험실로 지정되었다.

+ 대한수의사회장, 회원과의 대화 추진

2009년부터 회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를 방문하여 실시된 회원과의 대화가 완료되었다. 올해에는 7월 29일 경상남도지부, 9월 8일 부산광역시지부, 10월 24일 인천광역시지부,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1월 24일 경기도지부, 12월 2일 강원도지부까지 총 6개 지부를 방문하였다.

회원과의 대화는 중앙회가 준비한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한 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만찬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 수의직공무원 수당인상 건의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회(회장)에서는 전문지 등에 수의직 공무원 수당인상의 필요성을 기고하였고 가축위생학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협의하여 인상안(월 7만원 → 월 40만원)을 마련하였고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건의하였다.

+ 이동제한수의사 보상추진

가축전염병을 신고하거나 살처분 등 방역 활동에 참여한 수의사들이 일정기간동안 이동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동제한 수의사에 대한 보상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국회에서 입법 중에 있다. 현재 보상액은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에 준하는 임금(연봉 상한액 53,696천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 요람발간

수의사 및 수의사회의 활동에 대하여 대·내외적인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요람이 발간되었다. 요람은 수의사의 신조, 설립근거, 목적, 역대회장, 연혁, 조직, 수의사 현황, 수의사의 활동분야, 관련법령, 윤리강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정정

지난 10월에 발간된 대한수의사회지 제46권 10호 939쪽 “결론 부분 4행 마지막 문장(… . 하지만 초기 병력)에 이어”에서부터 실험실적 검사 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한다면 수술적 생검 이전에 복막염 진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